coupang newsroom

[보도자료] 쿠팡, 산업부 '제조 AX 얼라이언스' 참여 AI 기반 유통·물류 혁신 선도

2025. 9. 10.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과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제조 AX 얼라이언스' 출범식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쿠팡, 유통 물류분야 AI 대전환 혁신 선도 나서**
- **주요 업종기업, AI 전문가, 학계와 AI 대전환 논의**
- **"자동화 로봇 등 최첨단 AI 기술 기반 혁신 가속화"**

2025. 09. 10 서울 - 쿠팡이 국내 제조업의 인공지능 대전환(AX) 추진을 위해 정부가 분야별 AI선도기업과 전문가들로 구성한 민관합동 위원회인 '제조업 AX 얼라이언스'에 참여한다. AI가 제조업의 미래 먹거리와 핵심 성장동력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쿠팡은 유통·물류 산업의 AI 대전환을 이끌 주요 기업으로 AI기술 기반 혁신을 선도할 방침이다.

쿠팡은 10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제조 AX(AI Transformation) 얼라이언스 출범식'에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비롯한 AI전문 기업, 대학·전문 연구기관 등이 참석했다.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제조 AX 얼라이언스' 출범식에 참석했다

'제조 AX 얼라이언스'는 AI 팩토리·AI제조서비스·자율주행차·휴머노이드 등 업종별 10가지 얼라이언스로 구성된다. 각 업종별 얼라이언스에선 업종 대표 기업과 AI전문가, 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AI 대전환을 위한 규제 혁파 및 제도 개선 방안, 혁신 프로젝트 등을 논의한다. 쿠팡은 유통·물류 얼라이언스에서 정기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쿠팡은 이번 '제조 AX 얼라이언스'에 앞서 지난 4월 산업부가 발족한 '유통-AI 얼라이언스'에 참여해왔다. AI·로봇·자동화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풀필먼트센터 업무 효율화 방안 등 유통·물류에 다양한 AI 기술을 접목한 사례를 공유해왔다.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와 백은옥 국가AI전략위원회 데이터 분과장이 '제조 AX 얼라이언스' 출범식에 참석한 모습

쿠팡은 AI 기반의 최첨단 자동화와 로보틱스 기술 등을 풀필먼트 현장에 빠르게 도입하며 '미래형 물류'의 패러다임을 제시해왔다. 지난 2023년 문을 연 아시아 최대 규모의 대구 풀필먼트센터와 지난해 준공한 광주첨단물류센터 등 주요 물류 인프라 시설에 무인 운반 로봇(AGV), 소팅 로봇(sorting bot), 디팔레타이징 로봇 같은 최첨단 AI기반 기술들을 대거 확대 중이다. 특히 올해 들어 주요 거점 풀필먼트센터들의 AI기술 기반의 자동화율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 무거운 물건을 운반해주거나 들어주는 자동화 AI 로봇 확대를 통해 풀필먼트 운영의 효율성은 크게 제고하는 동시 직원 업무량은 크게 절감되고 있다.

쿠팡 관계자는 "'AX' 제조 얼라이언스 참여를 통해 산업부 등 유관 기관과 협력을 강화, 유통 물류 분야의 AI 대전환이 성공리에 추

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앞으로 쿠팡은 테크 기반의 혁신 기업으로서 글로벌 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AI 기술 기반의 물류 및 고객서비스 혁신에 속도를 내고 지역 중소상인과의 상생협력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